

# '공감과 연대 실천하는 문화 플랫폼'

전주문화재단, 성과보고·주요 정책 발표... 4대 가치 실현 위한 4대 목표 설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9일 팔복 예술공장 B동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1년 성과보고 및 2022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예술적 상상력으로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문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미션과 함께 전환·창의·혁신·확산이라는 4대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연대 형성, 지역예술가 역량강화, 문화를 통한 시대담론 및 시대가치 선제적 주도, 시민의 문화권 확대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사회적 연대 형성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와 포럼의 확대 개최와 재단의 중기 비전 수립과 조직 진단을 통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 전북문화비리협의회, 전북권재단 원탁회의, 전북성평등네트워크 등 지역의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북권 6개 재단의 상호협력 있는 연대 방안을 도모한다. 그리고 생태와 기후에 관한 환경운동연합과 지속발전협의회와 각 대학, 시민문화권 형성에 관련한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와 동네 문화공간, 탄소예술과 관련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대학,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협의체와 호주 멜버른 아트 플레이 등 문화예술

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역예술가 역량강화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예술 지원사업을 통·폐합했으며, 기존의 창작과정 중심지원에서 제작과 유통 지원으로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또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이 10주년을 맞아 원로·작가 예술인에 대한 가치 확산을 목표로 전주 예술가 디지털 아카이빙, 아카이브 전시, 포럼, 인문학 콘서트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조명 기획展 '전북의 판화 30년 재조명', 탄소섬유 기획展 등 실험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팔복예술공장의 지역작가 참여 기회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세번째로 문화를 통한 시대담론·시대가치 선제적 주도로써 생산부터 유통·홍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립해 지역문화학자의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참가기준을 전주연고 문화가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린리네스스 프로젝트, 예술로GREEN전주, 탄소예술 프로젝트, 전북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시대담론 안에서 예술인의 목소리가 가치를 갖도록 지원한다. 또 문화예술교육, 예술인 역량강화, 버츄

얼 전시, 국내·외 교류 구축 등 전주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각화를 위해 팔복예술공장 메타버스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문화권 확대에서는 전주 생활문화센터협회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추진, 시민의 문화권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인문학기반의 팔복예술대학 온라인 강좌를 확대 운영해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 기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콘텐츠를 세분화하고, 지원자 중심의 섬세한 지원방안을 확립한다. 특히 한국소설(규방침우傳)과 전주의 설화(남고산 호랑이)를 조명하는 창작극 칠우(七友 가계)는 남인우(연출/극본), 강한준(작곡), 방수미(작창) 등 실력과 제작진이 참여하는 전주의 대표 브랜드공연으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추진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202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위드 코로나 상황일수록 예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예술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문화정책을 추진해 연대와 협치를 통해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새 단장

노후화된 시설 전면 개선·상설전시실 개편해 힐링 공간으로 탄생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관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상설전시실을 개편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전라북도도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상설전시관 1층 로비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로비 오른쪽에 위치한 카페와 갤러리 휴게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즐기며 한운성 작가의 작품(전북도립미술관 대여)과 박물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추후 이 공간은 지역 신진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주 시니어 클럽에서 박물관 카페를 운영하며, 박물관문화재단에서 문화상품점을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 만

든 수제 음료, 간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날 수 있다.

상설전시실은 전라북도도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층 로비에는 전라북도도와 전주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실감영상이 자리를 잡았다. 18세기 회화식 지도인 '전주지도'를 재해석해 평화로운 전주의 모습을 담은 '전주도 원도'와 강세환의 '부안유람도권'을 모티브로 현재의 변산, 우금암, 직소폭포, 채석강의 일몰까지 부안의 아름다운 실경을 담은 '부안유람도와 변산기행'을 감상할 수 있다.

홍진근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전시를 관람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누구나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대역사 특별전 'Be With You, 전북대학교'

전북대역사관, 3월 말까지 70년 넘는 대학 역사 한 눈에 확인

전북대학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3월 말까지 전북대박물관 1층 전대역사관에서 열린다.

전북대역사관(관장 홍찬석)은 대학의 역사 자료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대역사 특별전인 'Be With You, 전북대학교'를 마련했다고 9

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한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희소 가치 높은 자료들이 공개된다. 지역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사회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 온 전대인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역사자료들을 만

나볼 수 있다.

특히 2019년 문화재청이 지정한 교내 국가등록문화재 3종 건물(구 본관, 구 문리과대학, 구 도서관)을 모델링해 초창기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초창기 대학의 중심부로 대학의 역사와 전대인의 추억을 담고 있는 건물이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학적 특징을 살려 건축 당시 모습을 재현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헤이세종' 열사 자료를 공개해 민주화에 헌신했던 열사의 염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60년대 학적부, 학생증, 졸업증서, 졸업앨범 등 학창시절 추억을 담은 자료들을 전시해 지역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전북대역사관은 학교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해 대학과 지역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3월 말까지 전북대박물관 1층 전대역사관에서 열린다.



## 부안 석정문학관, 상주작가 모집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2022년 석정문학관 상주작가를 모집한다.

이번 상주작가 모집은 (사)한국문학관협회에서 진행한 2022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부안군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학작가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모집일 현재 부안군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등단 3년 이상, 작품집 1권 이상을 발간한 문학작가이며 선발된 작가에게는 근무지 제공은 물론 월 200만원(세전)의 보수와 4대 보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접

수는 석정문학관에 위치한 문화재단 사무실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재단 담당자(063-584-0561)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상주작가 모집에 역량 있는 문학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안군민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 증진과 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